

한자를 통한 창조론 주장에 대한 재고

원호영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I. 서론

1. 한자와 창세기


창조과학회⁵⁹⁾는 과학이라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창조론을 설득하는 모임이다. 창조론을 마치 신앙을 바탕으로 한 비과학적으로 것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을 수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핵심은 맹신이 아닌 사실에 바탕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창조론을 주장한다는 점일 것이다. 창조론 강의 가운데 구체적인 제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한자와 창세기”라는 주제 강의가 있다. 김명현 박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또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기본적으로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고대 한자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이 책의 저자인 벨슨 박사는 한자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울였고, 고고학을 비롯한 여러 자료 수집과 분석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역사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은 1979년에 출판된 도서이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발표한 내용이다. 또 이 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만든 『고대 한자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는 1986년에 출판되었다. 그저 출판된 지가 오래되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런 학문적인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특히 이 글을 집필했던 저자들이 한자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한자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저서를 번역했던 사람들 역시 한자학과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한자문화권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점이 한자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은 내용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들을 범하게 되는 출발점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창조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리라 확신한다.

문자학개론(한자학) 수업을 마친 한 학생이 와서 교회에서 있었던 특강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었다. 창조과학회에서 나오신 분께서 성경에 맞추어 한자를 분석해 주셨던 것이다. 학창시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생겨날 즈음해서 늘 생물교과서와 성경책 사이에 방황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진화론도 창조론도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도 말씀해주셨지만, 웬지 교과서의 서술은 그렇지 않았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현실 저 너머에 있는 것만 같았다.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분명해졌지만 그 때는 스스로 설득할 수 없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났다. 나를 찾아왔던 그 학생은 나와는 반대의 경우를 겪고 있는구나 생각하니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다. 그전까지 그냥 흘러들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졌고, 정말 그러한지 분석해보고 싶어졌다. 믿고 싶은 사람들과 믿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내용이다. 한자학 수업을 담당했던

59) 한국창조과학회는 1981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기독교인들과 기관들의 후원 가운데 그 목적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 : www.kacr.or.kr

교수님 앞이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를 찾아왔던 학생이 그 강좌를 듣고 난 다음의 감회는 회의적인 것이었다. 중문학도로서 한자에 대한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물며 이것을 통해 창조론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더 나아가 중화권(한자문화권) 사람들을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선교전략의 한가지로 생각한다면, 한자를 통해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을 더 늦기 전에 재고해야 한다.

2. 한자의 변체(變體) 속성

한자의 특징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한자의 형태인 갑골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자체라 할 수 있는 해서체까지 그 글자의 모양을 바꾸며 변화해 왔다는 점이다. 그 글자체의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갑골문, 금문(金文 청동기문자), 전국문자(戰國文字, 진나라 문자 포함), 소전(小篆), 예서(隸書), 해서(楷書), 간체자(簡體字)로 볼 수 있다. 물론 예서에서 해서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행서(行書), 초서(草書)가 등장하긴 하지만, 정체(正體) 즉 표준체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다. 자형(字形)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진(秦)나라 이전의 고대 한자가 그림 문자적 요소가 많았는데, 한대(漢代)를 지나오면서 단순화, 정형화, 직선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화 모양을 바꾼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이전 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서 글자를 잘 못 이해하여 바르지 못하게 자형이 왜곡되는 한자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다. 한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바이블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설문해자(說文解字)》 역시 그런 오류를 범한다. 이 책의 저자인 허신(許慎)은 후한(後漢) 사람이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갑골문이나 청동기문자 즉 고대 한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그나마 엄청난 노력으로 진시황제의 통일서체인 소전을 표제자로 하고, 그 당시에 사용하던 예서로 설명하고, 소전 이전의 古字(현재 춘추전국시대 문자로 추정)를 이체자(異體字)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갑골문이 발견된 지 이제 100여 년이 된 걸로 본다면, 이러한 한계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모른다. 다시 말하자면, 글자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조자원리(造字原理)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문자의 자형을 봐야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 없었기에 허신 역시 시대적 한계를 안고 글자를 해석했던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자형이 갑골문이라고 하지만, 갑골문이 최초의 문자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갑골문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갑골문 역시 이미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의미라고 말하는 조자본의(造字本意)가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이미 제2의 제3의 유추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갑골문에서 상형, 지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다수 등장하는 가자자는 이를 반증한다. 이러한 시대적 한계는 글자를 해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임금 왕(王)을 해석하는 데, 동중서의 말을 인용하여 풀이하기를, 가로 획 세 개를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해석하고 세로 획 한 개를 꿩을 뜻하는 것 혹은 통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왕이라는 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⁶⁰⁾ 그 당시 왕이라는 지위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해석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자학에 입각하여 이 글자를 접근하면, 이 글자의 고대 자형은 도끼 모양의 무기를 본 뜬 것이다.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을 보면, 이다. 고대 사회에서 특정 무기를 아무나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추정한다면 한 부락이나 부족의 상징, 더 나아가 그러한 대표성을 지닌 자, 그러한 권력을 잡은 자로써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잡은 자로써 해석하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조자원리를 통해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 조자본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한자의 자형과 자의(字意)를 바탕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파자(破字)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도를 넘는 파자를 통해 글자를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득력을 지니기 힘들다. 글자를 쪼개어서 해석하는 파자는 언어유희로서 즐겨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자의 언어유희가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88세를 흔히 미수(米壽)라 한다든지 99세를 백수(白壽)라 하는 것들도 언어유희인 파자에 기원한다. 米자를 쪼개어 위에는 점 두 개를 八자로 가운데 열 십(十) 그리고 아래에 두 점을 八자로 해석해서 88이라는 숫자를 만든 것이다. 백수의 白은 일백 백을 의미하는 百에서 위의 한 획 한 일(一)을 뺀 글자의 모양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숫자 99를 만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흰 백(白)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파자는 글자의 본의와 상관없다. 알다시피 米자는 곡식의 모양을 본 뜬 글자이다. 그 자형은 **딕뉘** 하니, 그 자형만 보아도 그 의미가 쉽게 짐작된다. 이렇게 아무렇게 파자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지금의 글자 모양 즉 현재 사용하는 해서체 자형(字形)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자의, 자원(字源)이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전 글자의 정보 부족이었던 필사의 편리를 위해서 그랬든, 글자가 왜곡되어 자리 잡은 글자 수가 많음을 고려할 때 한 글자 안에 의미소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 자전에 같은 부수에 속해 있다고 그 글자들의 의미소의 의미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한 글자 안에 月자 모양의 의미소를 지니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고기 육(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가장 많다. 흔히 육달월 번으로 읽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신체 기관과 관련된 글자들 같비대 록(肋), 간 간(肝), 창자 장(腸), 어깨 견(肩), 풍구명 항(肛)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하는 글자이다. 그리고 초하루 삭(朔)자와 같이 달 월(月)의 의미를 가지는 글자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벗 붕(朋) 같은 경우에는 구슬 옥(玉)이 변해서 자리 잡은 경우이다. 나 짐(朕)과 같은 경우는 배 주(舟)가 변해서 자리 잡은 경우이고, 능할 능(能)은 원래 곰(熊)의 모습을 상형한 글자였으니, 실물리 月자만 떼어 내어서 해석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한자 학자들은 한자는 필사(筆寫)의 편리와 의미의 명확성이라는 두 축에 따라 자형이 변화,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한자가 한참 자리를 잡던 시절이었던 진나라 한나라 시절에는 정자가 정해지면, 글자를 많이 사용하는 실무 관리를 비롯한 민간에서는 속자(俗字)가 등장한다. 정체(正體)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초체(草體)라 불린다. 예서의 등장 역시 그러했다. 예서의 隸는 진나라 통일 이후 노예를 관리하던 관리들이 소전체를 사용하기엔 불편해서 간략하게 글자를 쓰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서체라고 한다. 이렇게 필사의 편리를 위해 한자의 모양을 간략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잘못된 글자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초서처럼 필사의 편리만을 추구하다가 글자의 식별인 의미의 명확성이 떨어지게 되면 간략화 속성에 제동이 걸리기도 한다. 행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그러하다.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예서체로 자리 잡는 과정을 특별히 ‘예변(隸變)’이라 부른다. 특별히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한자의 모양이 가장 심하게 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이전의 글자 자형인 소전을 표제자로 사용한 허신의 《설문해자》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전과 갑골문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1000년 이상의 시간이 존재한다. 위의 두 저서에서 고문자의 형태라고 들고 있는 예들은 거의 다 소전체 혹은 전국문자 또는 이체자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을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II. 결론

한자에는 창세기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일련의 한자분석은 어떤 오류가 있는 것

60) 《說文解字》：“王，天下所歸往也。董仲舒曰：“古之造文者，三畫而連其中謂之王。三者，天、地、人也，而參通之者王也。”

인가? 먼저는,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의미인 조자본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어떤 한 글자가 등장하면 이 글자를 따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가능하다면 조자본의에 가깝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증작업은 전문가들도 힘든 작업임에 틀림없다. 둘째는 지나친 과거를 통해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조자본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근거마저 부족한데, 부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서 글자를 풀이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 자형에 얽매어서 모양이 똑같거나 비슷하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다. 이 또한 조자본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어떤 글자들을 후대(한대 이후)에 만들어져서 그 자원(字源)을 분석하기 힘든 글자들도 있다. 그래서 글자를 해석하는 견해도 여러 가지이고,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정확하지 않는 글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글자들은 그래도 그 조자본의를 추적하기에 자형들이 잘 보존되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두 저서에서 해석한 글자들 중에서 비교적 확연하게 드러나는 오류를 안고 있는 글자들인 셈이다. 하지만 이 글자들의 해석해서 출발해서 확대해나가고 있으니, 이 글자들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1. 田은 에덴동산

田 口 (올타리) + 十 (네 방향으로 흐르는 강)로 분석하여 에덴동산으로 해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100) 이것은 현재 자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글자는 갑골문에도 등장하는데, 그 자형은 **뚝뚝**이다. 그 모양을 보면 네 방향으로 흐르는 강으로 보기에 모양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한 땅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갑골문에서는 고대 귀족들은 동산(圃)이 있었으며 그것을 전렵(田獵)의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이 동산은 도랑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 하였다. 그래서 테두리 안에 있는 선의 모양을 구획한 전렵 구역으로 해석하고 있다.(徐中舒, 1998: 1644) 갑골문에서는 전렵의 의미와 농경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획한 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밭의 의미로 굳어졌고, 논은 밭에 물의 요소를 덧붙여 논(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자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글자로, 우리의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단순히 테두리 안에 모양이 ‘十’라고, 네 방향으로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 그래서 에덴동산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는 여러 글자에서 부분을 차지하는 의미요소로 등장하는 田의 모양은 거의 모두 에덴동산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오류가 오류를 낳는 형태라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福을 示(하나님) —(첫째) 口(사람) 田(에덴동산)으로 과거하고,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어 복(福)을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C.H. Kang & E.R. Nelson, 1991: 202) 시에 대해서 김명현 박사는 강의 중에 위의 두 획 二은 하늘을 나타내고 밑에 있는 세로 세 획은 세 사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라고 보았다. 오히려 빛은 박사는 원래 제물을 차려놓는 제단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신다는 데서, ‘보이다, 선언하다, 계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하나님’을 의미하는 부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즉 글자의 원래 의미를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福**이다. 이 글자는 갑골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글자이다. 福이라는 글자의 갑골문 자형은 **뚝뚝뚝뚝**이다. 이 글자는 술그릇(酒器)을 본뜬 글자이다. 그 해석을 보면, 고대인들은 술로써 생활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술을 신에게 드린다는 것은 신이 내려준 복에 대한 감사, 보응 혹은 복을 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徐中舒, 1998: 16)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

문에, 제기(祭器)가 가지는 의미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글자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어 복을 주셨다고 해석하면 매우 성경적이고 매력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글자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鬼와 魔의 해석에도 田을 에덴동산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 먼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鬼를 살펴보자. 내용이 길어 아래와 같이 인용하였다.

- ① 田 :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장소인 에덴동산을 나타냅니다.
- ② 儿 : 마귀는 뱀의 모습을 입고서 사람처럼 하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 ③ 厶 : ‘남 몰래’라는 뜻으로, 뱀은 하와에게 ‘은밀하게’ 접근한 것을 묘사합니다.
- ④ 丿 : ‘살아 움직이다’라는 뜻으로, 마귀의 활동을 나타냅니다.⁶¹⁾

또, 魔는 이 글자에 등장하는 두 나무(林)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고, 두 나무 사이에서 하와를 유혹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31) 그러나 이 두 글자의 공통부분이라 할 수 있는 鬼의 갑골문 자형은 **뚝뚝뚝뚝**이다. 사람의 몸에 큰 머리를 가진 이상한 존재를 본 떠 이로써 산 사람과 다른 귀신을 표현하였고, 厶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 하였다.(徐中舒, 1998: 1021) 《설문해자》에서도 ‘田’는 귀신의 머리를 본 뜬 것으로 해석하였다.⁶²⁾ 이 글자의 고대 자형에서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타낼 때 그것이 서 있는 모습이건, 앉아있는 모습이건 혹 정면의 모습이건 측면의 모습이건 얼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입을 그린다는지 눈을 그린다는지 귀를 그린다는지 한다. 그러나 이 글자에서는 얼굴부분을 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표현할 때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었으나, 얼굴부분을 묘사하는 데 있어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본다면, 고대인들이 귀신을 떠올렸을 때 뚱가 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에 얼굴의 형체를 모호하게 표현하였고, 알 수 없이 두려운 존재였기 때문에 크게 그렸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자들 역시 자형에서 보면 田(에덴동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정작 남자를 표현하는 男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田을 에덴동산으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말로 해석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남자(男) 아담은 밭(田)에서 땅을 흘리며 힘쓰고(力)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214)



위에서 𠂇(丿)을 ‘살아 움직이다’로 해석했는데, 그것은 아래의 生자에서 기인한다.




2. 生의 𠂇(丿)은 생기, 생명

生 가로 세 획은 하늘, 땅, 바다를 뜻하고 𠂇(丿)을 지닌 생물체가 나왔다고 해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58) 그 이후로 이 𠂇(丿)은 생기, 생명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김명현 박사는 강의 중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 호(戶)와 주검 시(尸)를 들어 생기,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사는 집이 되고 생기, 생명이 없으면 죽은 시체가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먼저 生자의 갑골문 형태를 보면 **뚝**이다.(徐中舒, 1998: 687)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초목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양을 본 떠 만





61) C.H. Kang & E.R. Nelson, 1991: 31

62) 《說文解字》: “鬼, 人所歸爲鬼. 从儿, 由象鬼頭. 从厶.”

든 글자이다. 가로 세 획을 하늘, 땅, 바다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 집 호(戶)는 갑골문 형태를 보면  로(徐中舒, 1998: 1280) 외쪽 문을 형상화한 것이고, 주검 시(尸)는 그 모양이  로(徐中舒, 1998: 942), 기본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본 뜬 글자이다. 이렇게 출발부터 완전히 다른 한자를 현재 자형이 빼침 하나의 차이라고 빼침을 생기, 생명으로 해석하면서 두 글자를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글자의 원래 자형과 상관없이 시대를 지나면서 생겨난 글자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들이라 볼 수 있다. 그 지나친 확대가 바로 다음 글자인 先자이다.

먼저 선(先)자는 하나님께서 첫(先) 사람(人)을 흙(土)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ノ)를 붙여 넣으셨다고 해석하였다. 즉 빼침(ノ)과 흙 토(土)와 사람(人)으로 파자하여 분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199) 그러나 이 글자 역시 갑골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글자이며, 그 자형은  꺾이다.(徐中舒, 1998: 975) 자형은 분명 발의 모양을 사람의 위에 그려놓고 있다. 《설문해자》에서도 先이라는 뜻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며, 人과 之를 의미부로 한다도 해석하고 있다.⁶³⁾ 결국 《설문해자》에서도 사람과 발의 모양을 합하여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先은 후과는 전혀 상관 없는 글자이다. 좀 더 명확한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先과 반대되는 後자를 살펴보겠다. 後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으로부터 많은 아이(子)가 계속(父) 태어났다고 해석하였다. 子를 두 사람으로 해석한 것은 아래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고, 父를 연이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고, 父도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220) 하지만 갑골문에서 後의 자형을 보면,  이다. 그 자형을 보면, 발(止)이 거꾸로 된 모양과 결승의 모양이 합쳐져서 만든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초창기에는 없던 子이 첨가된 것은 움직임의 의미를 보충하기 위해 후에 이루어진 조치일 것이다. 결승은 중국 고대인들이 세대를 표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 세대를 표시하는 卅 ()는 세 개의 결승 매듭을 통해 30년을 의미하는 글자임을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보다 先과 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발(止)이다. 즉 발이 위치에 따라서 先後를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 또한 先이 흙이나 생기와 관계없으며, 先의 윗부분은 발의 모양을 본 뜬 글자임이 명확한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를 조(造) 역시 위와 같은 해석과 무관하지 않다.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에 있어 아주 대표성을 띄는 글자이다. 하나님께서 흙(土)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입(口)으로 그 코에 생기(ノ)를 붙여 넣으시니 사람이 말도 하며(告), 걷기도(能)하는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해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198)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


告 舌 音 肅( / )은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목탁의 추가 울리는 모습을 본 뜬 글자들이라 하였다. 하지만 마실 飲자의 초기글자의 형태를 보면 무언가를 마시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입에서 혀가 나오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위의 글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입에서 혀의 움직임을 형상화하여 말하다, 고하다, 소리를 내다는 의미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설문해자》에서는 造는 나아가간다는 의미이며, 肅을 의미부로 하고 告를 소리부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덧붙여서 고문에서는 舟를 의미부로 한다고 하였다.⁶⁴⁾ 금문의 造자 자형  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무튼 정확한 모양을



63) 《說文解字》“先, 前進也. 从儿之.”

추측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 글자 속에서 부분을 조개어 흙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한자 속의 사람 모양

파자 해석의 위험은 불 화(火)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火를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사람(人)의 좌우에서 광채가 발산되는 모습으로 분석하고 있다.(C.H. Kang & E.R. Nelson, 1991: 66) 불 화(火)는 그야말로 불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갑골문에 나타난 그 자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徐中舒, 1998: 1109)지금의 자형이 마치 사람과 두 점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글자의 본의는 사람과 전혀 무관하다. 이어서 영화 영(榮)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빛을 발하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火火)은 선약과(木)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나무위에 울타리(〓)가 있음) 순종할 때 영광(榮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榮자는 갑골문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금문 자형을 참고하여 보면  으로, 두 햇불의 모습을 본 뜬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 때, 〓 과 木은 후대에 첨가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 역시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나마 관련 글자 중에서 사람과 빛이 연관된 글자는 빛 광(光)자이다. 빛 광(光)의 경우 첫째(一) 사람(人)에게서 발산되는 빛(〓)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C.H. Kang & E.R. Nelson, 1991: 199)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정도의 해석은 아주 양호한 측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 글자의 자형이  이며,(徐中舒, 1998: 1118) 사람 위에 불꽃이 있는 모습이니,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첫째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파자에 기반하고 있어 옳지 않음을 지적한다. 사람과 관련하여 크나큰 오류 중에 하나는 올 래(來)일 것이다.

來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人人)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木)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211) 그러나 이 글자의 자형을 보면 사람과 관계없음을 알 수 있다. 갑골문에서 이 글자의 자형은  이다.(徐中舒, 1998: 616) 자형을 보자면, 보리의 모양을 본 뜬 글자이다. 즉 보리 맥(麥 )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를 해석하는 데 두 가지 견해가 있다. 來자가 원래 보리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이 글자가 가차(假借)되어 ‘오다’는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보리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원래 글자 來에 거꾸로 된 발(父)로 보리의 뿌리를 형상화 하면서 보리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 하나의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맥(麥)자가 원래 발(父)의 모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다’는 의미를 가진 來의 원래 글자이고, 보리의 뜻을 지닌 글자가 원래 來라는 것이 또 하나의 견해이다. 아무튼 어떤 글자가 더 먼저였고, 그래서 보리를 뜻하고 어떤 글자가 변형되어 나온 ‘오다’는 뜻을 지닌 글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글자는 사람 인(人)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매우 빈번히 등장한다. 심지어는 쇠 금(金)을 가로 세 획은 하늘, 바다, 그리고 땅을 가리키며, 위에 있는 덮개는 사람 인(人)의 변형이며, 양쪽으로 찍어진 점은 光자에서처럼 빛을 발하는

64) 《說文解字》：“造, 就也. 從辵告聲. 古文造從舟.”

모습이라 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80)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나는 빛은 땅에 있는 금과 보석들에 의해 반사되었다라고 설명한다.(C.H. Kang & E.R. Nelson, 1991: 204) 사람(人) 왕(王) 빛(양쪽 두 획)으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았다. 사실 글자는 청동기 주물을 위해 만든 거푸집의 모양이다.(**金 鋤**) 금이 쇠를 지칭하거나 黃金을 지칭하는 것은 후대의 일이다. 그 보다 이른 시기에는 청동기를 金이라 칭하였다. 그래서 중국 고대 청동기 기물에 새겨진 글자를 金文이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현재 자형을 보이는 대로 파자하여 분석하는 오류는 붉을 적(赤)에서도 나타난다.

붉을 적(赤) 역시 현재 자형 그대로 해석하여, 아담과 하와는 흙(土)으로 만들어진 몸이지만, 그 붉은(赤) 몸이 빛(宀)을 발산했다고 해석했다.(C.H. Kang & E.R. Nelson, 1991: 203) 오히려 이 글자는 사람과 관련 있는 글자이나, 윗부분을 흙 토(土)로 해석하고 있다. 갑골문에 나타난 자형의 모습은 **𠄎 𠄎 𠄎** 이다. 사람의 정면 모습(大)과 불(火)이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 수 있고, 흙과는 관련 없음 보여준다. 덧붙여 말하자면 신령 영(靈)을 분석하면서도 아래에 있는 巫를 그과 두 사람(人人)으로 나누었고, 다시 그은 위의 한 획은 하늘, 아래의 한 획은 땅, 지구, 가운데 세로획은 일하는 사람으로 해석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해석했다. 고대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사회라는 배경에서, 무당(巫)의 역할이 신과 인간을 소통하는 것으로 본다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巫자의 갑골문 자형을 본다면 **땃 땃** 로, 자형으로 판단하자면 사람과는 무관하며, 점을 치거나 신께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했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람의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는 그 도구를 잡고 있는 손의 모양임을 알 수 있다. 이 손의 모양이 후대의 글자체에서 사람 人의 모양으로 변했을 뿐이다.

來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연관시키려는 노력에서인지, 조급결을 彳(彳)을 두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 부수를 부를 때 '두인 번'이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彳자를 두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으며, 지구상에 단지 두 명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같이 다녔으며(往來), 숲속에 앉기도 하고(坐), 쫓아가기도 하고(從), 대화(談)도 했다고 하며, 여기에 등장한 모든 글자는 두 사람을 포함하는 글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실상 彳자는 行자의 자형을 보면 쉽게 이해된다. 行의 갑골문 자형은 **𠄎** 이다. 이것은 길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후대에 오면 길 사이에 사람의 모양을 넣어서 단순한 길의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게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彳을 부수로 하는 글자 중에는 움직임과 관련된 의미가 다수 있는 것이다. 또 여기에 止(止 屮)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쉬엄쉬엄갈 𠄎(𠄎) 부수를 만들어 낸 것이다. 두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는 坐와 從 두 글자이다. 그 중에서 從(彳)도 좌측의 변에 있는 彳의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 위에 있는 자형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다.

4. 아담은 西, 하와는 骨

西 하와가 창조되기 전 아담 𠄎(一) 사람(人)이 에덴동산(口)에 있었다고 해석하였다. 또 연이어서 썰은 창조제 6일 저녁, 태양이 서쪽(西)에 있을 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인 여자(女)가 필요했다(要)고 해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201) 즉 西자는 아담을 상징하는 글자이며, 중국인엔

게 에덴동산은 서쪽에 있는 것이므로 서쪽방향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먼저 서녘 서(西)의 자형을 보자. **夕 夕 夕** (徐中舒, 1998: 1276) 자형을 보면 이 글자가 사람을 형상화하는 글자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왕국유는 이 글자를 새동지를 형상화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설문해자》에서도 이 글자가 새가 등지에 있는 모습을 본 뜬 것이라 하였다.⁶⁵⁾ 뿐만 아니라 덧붙여 설명하기를 해가 서쪽에 질 때 새는 등지에 깃들인다하여 동서(東西)의 서쪽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단어들 모두는 방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자이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유추하여 빌려 쓴 글자이다. 동녘 동(東)을 날 일(日)과 나무 목(木)의 조합으로 알아서, 해가 나무에 걸려있는 모습, 즉 아침에 동이 뜨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로서 해가 뜨는 동쪽방향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한다. 이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이다.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이 글자는 양 쪽 끝단이 묶여 있는 주머니의 모습을 본 뜬 글자이다. **𠄎** (徐中舒, 1998: 662)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 글자를 빌려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빌려 동쪽이라는 방향을 뜻하는 글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西와 要하는 서로 관계가 없는 글자들. 要자의 자형을 보면 서쪽을 나타내는 西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여자와 두 손의 형상을 본 뜬 글자임을 알 수 있다. 견해에 따라서는 양손을 허리에 대고 있는 모습으로 혹은 양손으로 허리에 떠를 두르는 모습으로 해석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허리 요(腰)의 원래 글자임이 분명하다.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의미는 사람 몸의 한 부분인 허리라는 본의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다. 김명현 박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내 배(配)를 아담(西)에게서 갈비뼈 하나(一)를 빼어내어 만든 또 다른 자기(己)로 해석하였다. 西(𠄎)는 갑골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의미소이다. 물론 솔그릇의 모양을 본 뜬 글자이다. 솔그릇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이 일치한다. 갑골문에서는 용례가 많지 않아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하고, 금문에서는 무언에 부합하다 혹은 배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자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밝혀놓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렇게나 파자하여 해석하여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다. 西는 아주 많이 사용된 글자이므로 자형을 분석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며, 이 글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네이버 사전에서와 같이 사람이 술잔지를 늘어놓는 모습에서 ‘늘어놓다’는 의미가 생겼다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덧붙여 김명현 박사는 강(江)의 중(中)에 뼈자를 冎(태두리)와 그 안에 있는 冎(...)와 冎(뎡다 먹)와 月(肉)로 파자하여 아담의 갈비뼈에서 핏기를 꺼내고 살로 뎡었다. 그 꺼낸 것은 뼈(骨)고 그것이 바로 하와이다. 또 안에 있는 부분은 어떤 자형에서는 들 입(入)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슴에 손을 넣으셨기 때문에 입자가 생겨난 것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하와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였다. 갑골문에 나타난 뼈자의 초기 글자라 할 수 있는 冎는 그 자형이 **冎 冎 冎 冎** 으로, 거북이 배 꺾질과 더불어 갑골문을 새기는 재료로 사용되었던 소의 어깨뼈(肩胛骨)를 형상화 한 것이다. 그리고 핏기라고 했던 것은 뼈에 새겨진 복사(卜辭 점을 찔던 내용)의 卜자를 의미한다. 『漢語大字典』에서는 본래는 윗부분만 사용하여 뼈의 의미를 나타냈지만, 후대에 와서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고기의 의미를 가진 月자를 첨가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타당하다 하겠다.

5. 여덟 팔(八)을 강조하다

船을 배 주(舟) 여덟 팔(八) 입 구(口)로 파자하여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여덟 식구를 표현하고

65) 《說文解字》：“西，鳥在巢上。象形。日在西方而鳥棲，故因以爲東西之西。凡西之屬皆從西。”

있다고 해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140) 기독교인이라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해석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홍수(洪水)의 홍(洪)을 한 일(一) 연합하다(卅) 여덟 팔(八) 물 수(汜)로 파자하여 물에서 구원받은 자가 모두 8명임을 상기시켜준다 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143) 벨슨 박사는 이 세상에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라고 하면서, 여덟 팔(八)자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이어서 노아의 여덟 식구가 지붕을 삼고 처음 거처했던 굴을 굴 혈(穴)로 표현하였고, 여덟 사람 모두가 일하기 위해서 들에 나갈 경우 동굴은 땅 비게 되었으므로 빌 공(空)으로 표현하였고, 노아의 여덟 식구는 현 인류의 공동 조상이 된 셈이기 때문에 여러 공(公)으로 또한 공은 할아버지를 뜻하도 하는데, 이는 바로 노아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였다. 노아의 여덟 식구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 모든 양식을 나누어 먹었는데 그것을 나눌 분(分)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였고 해석하였다.(C.H. Kang & E.R. Nelson, 1991: 226)

먼저 八자부터 보자. 갑골문의 자형 역시 지금의 자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로 상반되는 모양으로 등지고 있는 모습이다. 《설문해자》에서는 나누다, 분별하다는 뜻으로, 서로 상반되는 모양을 분별하는 것을 분 뜬 글자라고 하였다.⁶⁶⁾ 여기에 칼(刀)이 첨가되면서 어떤 물건을 나누는 의미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갑골문에서 역시 다른 숫자들 五, 六, 七, 九와 같이 그 글자의 본의와 상관없이 가차되어 숫자 여덟으로 사용했다. 주목할 것은 八자가 아래위로 겹쳐있는 형태가 등장하는데, (𠄎) 이것을 계곡물이 산에서 흘러나와 습지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며, 谷(𪗇) 또는 𪗇(𪗇)의 생략 형태라 하였다.(徐中舒, 1998: 70) 다시 𪗇은 《설문해자》에서 산 속에 움푹 들어간 늪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⁶⁷⁾ 아랫부분에 있는 입 구(口) 모양이 움푹 들어간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먼저 배 선(船)자를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할 점은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분석할 때 八자가 ‘나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계곡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적용하기에 앞서, 원뜻이 아닌 숫자로 가차되어 사용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한 의미소가 여러 다른 의미소와 연계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 낼 때는 그 의미소가 가진 원래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八이 숫자로 사용되는 글자이고, 식구를 나타내는 양사(量詞)인 口는 현대 중국인들도 여전히 사용하는 의미이다. 배 주(舟)에 비해 훨씬 후대에 나온 이 배 선(船)자는 춘추말기에 등장한다. 한자를 만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형성으로 배 주(舟)가 의미를 담당하고, 𪗇이 소리를 담당하는 형성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물론 소리를 담당하는 𪗇은 계곡물, 늪과 관련된 뜻이 있기 때문에 소리부로 들어갈 수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다음에 등장하는 洪자의 𪗇의 자형은 사실 八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형을 보면 𪗇 𪗇 두 손으로 물건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받쳐 들다’, ‘바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굴 혈(穴)과 빌 공(空)은 후대에 생긴 한자로, 굴 혈(穴)자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穴는 혈거생활의 주거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이 또한 여덟이라는 숫자와는 무관한 것이다. 공은 《설문해자》에서는 공평하게 나누는 의미이며, 八은 背의 의미로, 韓非子의 말을 인용하여 사사로움(△)에 반하는 것이 공이라고 하였다.⁶⁸⁾ 하지만 갑골문에서는 옹기 입구의 모양을 본 뜬 글자로 보았다.(𪗇) 그렇기 때문에 龔자의 초기 문자라 하였으며, 갑골문에서는 王公의 公으로 이미 가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들 글자 속에 八자로 보이는 의미소들은 여덟이라는 숫자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66) 《說文解字》：“八，別也。象分別相背之形。凡八之屬皆從八。”

67) 《說文解字》：“𪗇，山間陷泥地。從口從水敗兒。”

68) 《說文解字》：“公，平分也。從八從厶。音司。八猶背也。韓非曰：“背厶爲公。””

III. 결론

위에서 20여 글자에 대해서 분석했다. 본문 초두에서 언급했듯이, 조자본의에 대한 이해 부족은 파자의 오류나 현재 자형에 얽매는 오류의 출발점이다. 어떤 면에서 田을 에덴동산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교차되는 선이 여러 방향이 아닌 네 방향이라면 그리고 기본적인 의미가 동산을 의미한다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示를 원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했으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羊 역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양의 뼈를 형상화하여 양을 의미하며, 제사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그 상징성으로 볼 때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자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의미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대상과 일맥상통하여 그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같은 계열의 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의 상징 의미를 확대 적용한다든지, 글자의 자원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파자하여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한다든지, 현재 자형이 비슷하니 무리하게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분석 방법은 문제가 있다.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분야별로 많을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신의 견해에 대한 근거를 확신할 것이다. 이 말은 주장하는 견해에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문적으로 그러한 주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한자를 통해 주장하는 창조론은 전문적이지도 못하고, 근거 또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결정적 문제이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한자에 대해 조예가 남다르다면, 한자와 창세기라는 강좌의 내용은 수용하기 힘들다. 이러한 주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강좌에서 한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마치 《설문해자》라는 전통적인 한자해석에 얽매어서 한자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고, 파자를 통한 새로운 해석은 기존 학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아주 창의적인처럼 말한다면 대단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창조과학회와 창조론 주장을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특히 한자를 통해 주장하는 창조론을 한 자문화권 선교의 한 전략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박재성(2011). 『한자에 숨어있는 성경 이야기』. 서울: 미디어서평.
에델 R. 넬슨, 리처드 E. 브로드베리(2004). 『고대 한자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전광호, 우제태 역. 서울: 예향.
전상철(2009). 『성서와 한자의 비밀』. 서울: 좋은땅.
C. H. Kang & E. R. Nelson (1991). The Discovery of Genesis.
이강국 역(2008).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서울: 미션하우스.
戴家祥主編(1999). 『金文大字典』. 上海: 學林出版社.
徐中舒(1998).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于省吾主編(1999). 『甲骨文詁林』. 北京: 中華書局.
臧克和 王平 校訂(2002).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陳初生編纂(1992). 『金文常用字典』. 高雄: 復文圖書出版社.
漢語大字典編輯委員會編(1998). 『漢語大字典』. 台北: 建宏出版社.
許慎原著, 湯可敬撰(1998). 『說文解字今釋』. 長沙: 岳麓書社.

기독교세계관, 선교/01/논평문/

“한자를 통한 창조론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에 대한 논평

김동춘 (연변대 역사학 박사, 북경SFCD대표)

먼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난감했습니다. ‘또 창조과학회나 한자를 공부한 신앙좋은 분(?)들이 영해(?)를 하겠구나’ 라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바로 그런 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을 읽기 전에는 ‘학문적이라기 보다는 신앙적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논리에 대해 어떻게 비판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논문을 읽고 난 뒤에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매우 기뻐했습니다. 필자가 기다려 왔던 논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 한자와 성경에 대한 책과 글들에서 보아왔던 파자식의 한자 영해설을 매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기존 비판해 주었습니다.

사실 필자도 학생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명분하에 이런 영해적인 강의를 많이 하였습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말 이렇까, 그렇게 조합되었을까 라는 의구심과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있던 중국에서도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고대 한자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같은 벨슨 박사의 책과 글들이 가정교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추세여서 조바심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논문을 통하여 기존의 의구심과 조바심을 한 순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원 선생님의 논문에서 돋보인 것은 ‘한자와 성경’ 영해설의 고전처럼 되어 있는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저자인 허신(許慎)이 후한(後漢) 사람으로,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갑골문이나 청동기문자 즉 고대 한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선생님의 지적은 타당한 것입니다.

또한 갑골문에 대한 의견에서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글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의미라고 말하는 조자본의(造字本意)가 상당부분 훼손되었고, 이미 제2의 제3의 유추 현상이 일어났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동감합니다. 고려시대 각각 다른 처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고대사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유추하고, 또 후대에 그 유추를 시대마다 다르게 유추했듯이 말합니다. 비록 고대사에 대해서 다른 구전설이 있어도 그것을 팩트 그대로 전달해야지 무리한 해석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자본의를 알 수 없는 한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정도만 하여 해석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단정적으로 그것도 과학인 것처럼 논리를 넣어 키워밧추기식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명쾌한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해서체 자형(字形)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자의, 자원(字源)이라고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견, 자전에 같은 부수에 속해 있다고 그 글자들의 의미소의 의미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본문에선 20여가지의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기존 파자 해석을 잘 비판해 주셨습니다. 田 福 鬼 魔 生 先 後 造 火 光 來 金 赤 西 骨 八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면서 해석을 해 주어 이해가 쉬었습니다. 月자 모양의 의미소에 대한 해석이 파자 해석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지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한자와 창세기에 가장 신비했던 해석이었던 ‘船’에 대해서, “배 주(舟)에 비해 훨씬 후대에 나온 이 배 선(船)자는 춘추말기에 등장하는 한자, 배 주(舟)가 의미를 담당하고, ㅅ이 소리를 담당하는 형성자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일으켰습니다.